

서울특별시의회 프리랜서 권익 보호 및 지원을 위한 조례안 제안 설명

- 존경하는 유용 위원장님, 기획경제위원회 위원님 여러분!
더불어민주당 관악구 제 2선거구 출신
운영위원장 서윤기 의원입니다.

- 본 의원이 대표발의한 「서울특별시의회 프리랜서 권익 보호
및 지원을 위한 조례안」의 제안 설명을 할 수 있게 되어
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.

- 우선 조례안의 제정취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.
정보통신기술의 발전과 조직구조의 유연화,
고용형태 다변화의 영향으로,
일정한 소속 없이 비종속적인 관계에서 자유롭게 계약을
체결하고 용역을 제공하는 프리랜서 형태의 종사자들이
급속하게 증가하고 있습니다.

- 그러나 이들은 관계 법령상 근로자나 자영업자로 분류하기
어려운 직업적 모호성으로 인해

매우 취약한 사회안전망 속에서
각종 불공정 거래로부터 보호받지 못하는 상황에 처해
있습니다.

- 올해 서울시 프리랜서 실태조사에 따르면
프리랜서의 월 평균 수입은
약 153만원으로 '18년 월 최저임금 157만원에도 못 미치는
수준이며,
계약서 미작성, 보수 지연지급 등 불공정 거래가 빈번하게
발생하고 있습니다.

- 이에 본 조례안은
프리랜서의 권익 보호 및 활동 지원 사항을 규정함으로써
프리랜서 형태의 종사자들의 고용 및 계약조건 등과 관련하여
권익 침해 및 차별을 받지 않도록
지원하려는 것 입니다.

- 그 밖에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유인물을
참고해 주시고, 아무쪼록 운영위원님들의 심도 있는
논의를 통해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.
감사합니다.